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본격화

시,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총 522억원 투입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지어진 지 49년이 경과한 전주실내체육관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막바지 설계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프로농구 전주KCC 홈경기장을 비롯한 농구와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 다양한 구기 종목의 경기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 지어지는 전주실내체육관은 총 사업비 522억 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2만186㎡에 연면적 1만9078㎡, 지하 1층~지상 3층, 수용인원 6000석 규모로 계획돼 있다.

시는 전주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해 '은(銀)경(景)'이라는 주제의 설계안을 선정했으며, 이달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7일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를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착수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실내체육관이 농구뿐만 아니라 배구와 핸드볼 배드민턴, 체조

등 각종 스포츠 국내·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전북지역 유일의 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유치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시장은 이날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를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이 신축 이전되면 시민과 농구팬들의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프로농구와 국제대회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복지를 누리는 공간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책콩20' 참여서점 추가 모집

도서 구입비 20% 할인 전주책사랑포인트 서비스

도서 구입비의 20%를 할인해주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에 참여하는 동네서점이 늘어난다.

전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전주시 내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서비스의 참여서점을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책을 구매할 때 정가의 20%를 포인트로 받아 즉시 할인받고 12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후 반납할 때마다 1권당 50포인트(원)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책콩20'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분기별로 참여서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일인 7일 이전에 전주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으로, 참여를 원하는 서점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시작된 '책콩20' 서비스에는 현재 38개 지역서점이 동참하고 있으며, 9200여명의 시민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 서비스로 시민들은 그동안 약 1억2000만 원의 도서구입 비용을 할인 받았으며, 참여 서점들은 6억 2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앞으로도 '책콩20' 참여서점을 분기별로 모집하여 시민들의 서점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며, "'책콩20' 제도를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과 감동, 치유 등 긍정적인 경험의 축적이 책 읽는 시민, 책읽는 도시 전주로서

의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주택용 태양광 설비 보급 지원

평화 · 완산 · 노송동 일원 189개 주택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충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 10억7100만 원을 투입해 평화동·완산동·노송동 일원 189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을 30%까지, 전력자립률을 40%까지 달성하는 에너지디자인 3040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지역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곳들로, 시는 해당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해당지역에 전기요금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182개소와 태양열 5개소, 지열 2개소 등 총 189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태양광 546kW와 태양열 51㎡, 지열 35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가 갖춰지게 된다.

가정용 3kW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가구당 연간 약 60만 원 정도의 전기세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북지환경국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확대해 에너지자립도시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생애 첫 선거권 행사' 학교 밖 청소년 유권자 교육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콤팩트)는 7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인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했다.

새내기 유권자 교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정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주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선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강사가 초청돼 △유권자의 개념 및 주권 행사의 중요성 △공식선거과정 △선거운동방법 △투표시 주의할 점 등을 소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으로 분류돼 제도권 안에서 선거교육을 받을 수 없다.

전주시 콤팩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새내기 유권자로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치 참여에 대한 의사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선 센터장은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콤팩트청소년에게 유권자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인재육성재단, 장학생 93명 선발 공고

전주시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대학생을 미래 전주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로 육성한다.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2022년도 1학기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과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20명과 도내 대학생 26명, 도외 대학생 17명, 특기장학생 10명 등 총 73명을 선발한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이며, 대학생 및 특기생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3월 7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북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자격을 취득한 대학생이다. 특기생은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선발한다.

신청요건은 고등학생의 경우 직전학년(신입생은 중학교 최종학년)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B+이상인 학생이며, 특기생은 전통문화(국악)·

미술·음악·체육 등 분야별 전국대회에서 1~3위 입상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면 가능하다.

선발심사기준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학업성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에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하고, 특기생은 수상실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에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해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단, 특기장학생 단체인 경우 수상 실적 50점만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전주인재육성재단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교육받아서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조·부모 세대,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차상위 계층 및 기타 생활형편이 곤란한 청소년 중 20

명을 선발해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가족구성 30점, 생활정도 70점과 자원봉사 실적시간을 가산점으로 최대 1.5점 범위 내에서 반영해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은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에 위치한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063-281-5082)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jiyu04@jinac.kr)로 접수하면 된다. 또, 청소년자립지원 장학생의 경우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